

헤이세이신잔 네이처 센터

헤이세이신잔 네이처 센터는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쳐 발생한 후겐다케(1,359m)의 분화로 다루키 대지를 뒤덮은 거대한 용암석, 바위, 재 위에 2003년 건설된 자연관찰과 학습을 위한 시설입니다. 이곳에서는 헤이세이신잔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며, 이 지역을 형성한 강력한 화산의 힘에 대한 것과 자연과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재생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. 화산 분화 후 동식물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보통 수십 년밖에 걸리지 않지만, 분화에 의한 황폐한 흔적은 그 후 수세기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토양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인근 마유야마(819m)와 다루키 대지를 비교한 전시에서는 과거 분화 징후를 지금도 숲의 바위와 흙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

또, 헤이세이신잔 네이처 센터에서는 여러 화산 활동이 다양한 암석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자세히 전시되어 있습니다. 과학자들이 관찰한 분화 전기간에 걸친 후겐다케의 모습과 이 암석들이 언제,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 및 분화 전후의 피크를 보여주는 영상도 있어 체험형 전시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줍니다.

전시를 관람한 후 시설 주변 산책로나 오솔길을 걸으면 회복되고 있는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. 헤이세이신잔(1,483m)은 지금도 화산이기 때문에 분화에 대비하여 길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울타리 위에 있는 작은 전망대에서는 산 정상에서 약 2.5킬로미터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다양한 각도에서 헤이세이신잔의 역동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